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해 도시민 유치

올 사업지 임대·자가 거주 15동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 접수 사업 시행후 85동 준공·공사 중

강진군이 빈집으로 도시 인구를 유치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진군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2025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첫 사업 대상 임대 9동, 자가거주 6동을 최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마을 경관 훼손을

예방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군 정주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5년 또는 7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강진군이 직접 리모델링한다. 군은 빈집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 후 이번 심의회까지 총 239동의 빈집을 신청받아 85동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52동이 준공됐으며 33동이 설계·공사중이다. 공사가 완료된 즉시 강진품에(愛) 사업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강진군의 대표 주거지원 정책인 빈집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제20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사례 중 대한민국 '최고'를 인정받았다.

사업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된 빈집의 노후도와 활용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해 선정할 방침이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강진품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강진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강진군으로 전입한 150여명은 그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가구와 주민들이 강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김성 장흥군수와 김병량 장흥군 산림조합장 등이 (재)장흥군나눔복지재단에 성금을 기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산림조합, 복지재단에 성금 300만원

장흥군은 장흥군 산림조합이 최근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성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조합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장흥군나눔복지재단은 주민공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병량 장흥군 산림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조합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재)장흥군나눔복지재단 관계자는 "장흥군 산림조합에 감사드린다"라며 "후원받은 기부금을 통해 주민공익사업, 청소년 특기지원사업, 희망보급자리 지원사업, 문화탐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춘란스쿨 개강...주민들 신소득 창출 기회 제공

군민 100여명 참여 6회 교육

화순군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란 보급사업을 위한 화순춘란스쿨의 문을 열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춘란의 기초 재배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춘란을 통해 신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화순춘란스쿨 개강식을 개최했다. <사진> 교육은 총 6회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과 화순춘란재배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주 1회 2시간씩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또 현장 견학 1회가 포함되어 춘란 재배 환경을 직접 견습할 기회도 주어진다. 교육 내용은 ▲춘란 기초 상식 ▲재배법 ▲환경 조절 ▲분갈이법 등 다양한 실습과 이론이 포함되며, 이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은 춘란 재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화순군민 100여명이 신청했으며,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춘란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춘란의 꽃눈 틔우기와 심기 실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류창수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

육을 통해 춘란 재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들이 신소득 창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농업인 정보화 교육

7개 과정 20명씩 수강생 모집

담양군이 스마트 농업환경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대처하고 SNS 활용 등 시대 흐름에 걸맞은 디지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 '2025년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안드로이드), 한글문서 만들기, 파워포인트 활용, 엑셀 활용,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공간:블로그 만들기, 영상 제작 기초와 활용을 주제로 디지털 농업에 필요한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정 당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과정별로 주 5일(월-금), 2-3시간씩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나주시, 맞춤형 금연 클리닉 연중 운영

6회 이수 본인 부담금 전액 환급

나주시가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8-12주 동안 총 6회의 상담과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회 차부터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6회차 치료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 없이 금연을 시도할 수 있다. 나주시 보건소는 금연 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지

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기업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금연 클리닉에 참여한 시민 637명 중 510명은 5회 이상 상담을 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클리닉 참여자의 상당수가 금연 성공률을 유지 중인 가운데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는 현재 지역 내 13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연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nh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함평군, 결식 아동 급식 제공 위탁기관 모집

21일까지...단가 9500원으로 인상

함평군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함평군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위탁기관 모집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기와 방학 중에 부식과 밀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은 올해부터 아동 급식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해 아동 급식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위탁기관은 함평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함평군은 오는 3월 중 위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위탁기관은 오는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여름-겨울방학 중 주 1회 밀반찬 및 부식 지원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이들에게 큰 버팀목이 돼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걱정 없이 성장할 수는 함평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28일까지 모집

장성군이 오는 28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휴대폰 앱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성군민으로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수치 ▲HDL(에이치디엘) 콜레스테롤 수치 가운데 1개 이상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주민이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은 참여

할 수 없다. 신청은 장성군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 대상에 선정되면 맞춤형 건강상담과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표표 달성 시 '스마트워치'도 무료로 제공한다. 장성군보건소는 지난해에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총 70명의 참여주민 가운데 62.9%가 건강상태 개선 효과를 봤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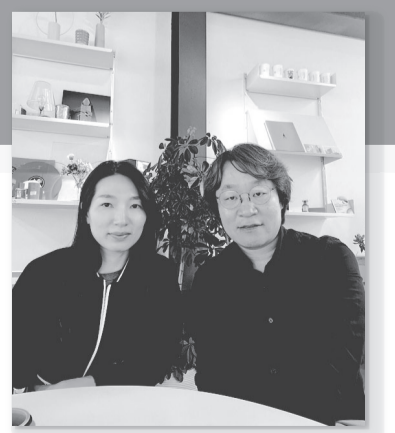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